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호 【루게 제25152호】주제105(2016)년 1월 9일(토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민족사적사변인 첫 수소탄시험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단행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장엄한 피성이 누리며 전진감각하며 온 나라를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새차게 끓어오르게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젖힌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력사의 대장지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대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만천하에 피시하는 자랑찬 쾌승이다.

반만년민족사에 특대사변으로 빛나게 아로새겨질 이 성과는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민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 무비의 담력과 배짱, 드림없는 선군 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전세계를 진감시킨 우리의 수소탄 시험의 완전성공소식에 절한 천만군민은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날뛰는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잡것들에게 정의의 불꽃을 내민 역사적정거에 무한히 고무되어 당의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가 8일에 진행되었다.

김일성평장과 주체사상탑, 당장전 기념탑, 4.25문화회관, 개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곳곳에는 선군혁명사에 길이 빛날 민족사적대장사를 맞이한 크나큰 환희와 격정,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인민이 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 온 수십만 군중들로 차넘치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투철한 자주적 리념과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자위적부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시어 반제반미

대결전의 편편전승을 이룩하시고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대회사격을 기다렸다.

대회에는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 시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평장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상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경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민족사적사변인 첫 수소탄시험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한 그 기세로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 《경축!》이라는 글발이 세워져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의 구호판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발을 드려온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광장주변 건물들에는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민에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동지조선의 매일을 앞당기자!》, 《백두산대국》, 《최후승리》 등의 구호와 글발들, 당기, 공화국기가 드리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뉘고있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김원홍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담백, 드림없는 선군의지가 안아온 장엄한 승리라고 말하였다.

오늘의 특대사변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강성국가건설의 역사적인 위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성국가건설수상을 기어이 실현해나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수소탄시험이 성공한 그 기세로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 《경축!》이라는 글발이 세워져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립시다》,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 등의 구호판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발을 드려온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광장주변 건물들에는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민에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동지조선의 매일을 앞당기자!》, 《백두산대국》, 《최후승리》 등의 구호와 글발들, 당기, 공화국기가 드리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뉘고있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김원홍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민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오날의 승리를 더욱 위대한 승리로 끝없이 이어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디고 싸움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며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이변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공화국의 존엄을 계속 위협하면서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긴다면 최강의 핵억제력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꽃의 기상을 안고 천수들의 무리를 써 종자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전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주체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청년대강국의 명장들로 억세게 자라난 청년대군이 강성국가건설의 격진장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펴며 휘날리며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속부대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이라고 하면서 자강력제일주의

를 높이 들고 주체공급,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자주, 지립, 자위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올레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내 나라》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군민련환대회가 끝나자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경축무도회들이 펼쳐지고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은 수도의 하늘가에 경축의 속포성이 터져올랐다.

《조선중앙통신》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평양시군민련환대회에서 한 축하연설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의 축하연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 2016년 1월 6일, 이날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핵무기산대국의 존엄을 만천하에 파시한 역사적장거의 날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막을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핵무기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드리는 최대의 경이이고 충경이 되주며, 선군, 사회주의 불변개도를 따라 역세게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드림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입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잔악한 날강도무리 미국의 침략전쟁도발 책동에 맞서 우리 공화국이 고도로 정밀화된 최초의 소형수소탄을 틀어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핵무기의 핵위협과 공갈소통은 물거품으로 되고 우리 조국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습니다.

누리를 짐작시킨 이 역사의 대장거, 민족사적사건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핵무기 밀림의 연길록판과 평천리의 기관대총으로 시작된 자위의 병기창은 오늘 원수들을 전멸케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수중탄도탄과 함께 수소탄까지도 마음먹은대로 팽방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놓고 세계각국에서 터져나오는 부러움과 놀라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대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세계를 위력적타격하는 현대정치적 거장, 최세의 명장을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무상의 행운으로 가슴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조석으로 변이 나는 격동적인 시대에 또 하나의 민족적대경사인 수소탄시험성공이라는 역사적사건에 접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는 오늘의 수소탄시험성공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특대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날것이라는 막판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하루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수소탄 시험성공을 깎아내리고 《도전》이요, 《위반》이요 하고 떠벌일수록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더욱 역세게 지켜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끊없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펼쳐주시고 핵무기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결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잃지않고 싸우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제일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한 국방부문의 영웅들처럼 당중앙과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함께 하며 수행의 유희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 나가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대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사상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핵무기의 혁명정신, 핵무기의 칼바람정신과 자강적제일주의를 베풀어 새긴 사상과 신념의 장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나가 하였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을 배아프게 여기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벌써부터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 전략핵폭격비행대를 끌어들이나 하며 나라의 정세를 전정정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며 존엄높은 주체의 품은 당기를 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전진을 멈추세울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오늘의 승리를 더욱 위대한 승리로 끝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핵무기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갑니다.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디고 싸움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며 만약 놈들이 이번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우리의 존엄을 계속 위협하고 우리의 신성한 렬토, 명봉, 명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즉시적인 천백배의 보복성전으로 원수의 무리를 썩자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겠습니다.

하여 보복마저 모자랐던 간고한 속에서도 미래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축하연설

은 세계를 진감하며 울려 퍼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이것은 우리나라를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운 조선로동당의 병진조선의 자랑한 쾌승이며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어떻게 세계를 더디고 천하무적의 최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가를 실현했는지 보여준 특대사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이라는 오늘의 가슴벅찬 현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핵무기산대국과 같은 신념과 배양, 필승의 기상을 가슴뿌듯이 새겨안았으며 만고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평화의 수호자를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존엄높은 위상과 무궁무연한 미래를 상상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주의의 횡포무도한 강권과 전횡이 만무하는 세계에서 자기의 강위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조국만이 침략자들에게 짓밟히고 부호봉제들이 식민지노예가 되며 청춘의 꿈도 꽃피울수 없다는것은 지난날 우리 인민의 쓰라린 역사와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밟히고있는 비극적현실이 보여주는 피의 교훈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선군업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변불류의 명도가 있어 강대한 자위적국방력을 감당해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수명은 더욱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으며 우리 청년들앞에는 막강한 주체의 핵무기 힘으로 담보해주는 휘황찬란한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수소탄시험성공에서 어찌구완의 비명을 지르며 그 무슨 제재요, 압력요 하면서 떠들고있지만 그것은 천하를 뒤흔드는 핵무기산대국의

기상과 용맹앞에서 공포에 질린 송냥이무리의 단말마적박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수소탄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했는지조차 상상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나자빠져있던 놈들은 그 주제에 수소탄의 보유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깎아내릴 신산으로 그 누구의 핵보유를 인정할수 없었습니다. 수소탄시험이 아니라 증폭핵분열탄시험이라는 하면서 비뚤침을 물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적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청년강국의 위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통째로 휘둘러놓은 오늘의 격동적인 사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전두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으며 핵무기의 칼바람에 뚫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곧바로 나아가갈 때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이 간직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맡는 억센 기동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당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군을 막을수 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심과 막판에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총직하게 받들

어나가는 열렬의 전위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맨 앞장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팽풍이 휘몰아쳐와도 당과 영리한 운명을 함께 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보금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지니고 우리의 자주적존엄을 감히 훼손시키려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있든 단대어 짓밟아버릴수 있게 단단의 결집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공장과 농촌, 과학연구기지 그 어디에서 일하든 핵무기산대국 청년강국의 기둥이 될수 있는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연수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감으로써 수소탄시험성공의 최성이 새로운 영웅청년선화장조의 만세소리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핵무기산대국사위인들의 슬하에서 주체혁명업무를 떠메고갈 맹장들로 자라난 우리 청년대군은 강성국가건설의 격진장마당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필뒀어 날리며 우리 당의 믿음직한 후배대, 최후대, 억척수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구가 천로각, 만로각만 대도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가는 원수님의 청년시대, 미대운 동지, 제일전우가 되어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온 세계가 영원히 우러러볼게 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대한 김정은 위대한 조선청년의 기개와 위용을 만천하에 파시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최강의 수소탄보유국 주체조선 만세!

잠수함수중탄도탄과 함께 수소탄까지도 마음먹은대로 팽방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놓고 세계각국에서 터져나오는 부러움과 놀라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대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세계를 위력적타격하는 현대정치적 거장, 최세의 명장을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무상의 행운으로 가슴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조석으로 변이 나는 격동적인 시대에 또 하나의 민족적대경사인 수소탄시험성공이라는 역사적사건에 접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는 오늘의 수소탄시험성공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특대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날것이라는 막판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하루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수소탄 시험성공을 깎아내리고 《도전》이요, 《위반》이요 하고 떠벌일수록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더욱 역세게 지켜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끊없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펼쳐주시고 핵무기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결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잃지않고 싸우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제일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한 국방부문의 영웅들처럼 당중앙과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함께 하며 수행의 유희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 나가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대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사상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핵무기의 혁명정신, 핵무기의 칼바람정신과 자강적제일주의를 베풀어 새긴 사상과 신념의 장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나가 하였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을 배아프게 여기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벌써부터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 전략핵폭격비행대를 끌어들이나 하며 나라의 정세를 전정정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며 존엄높은 주체의 품은 당기를 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전진을 멈추세울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오늘의 승리를 더욱 위대한 승리로 끝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핵무기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갑니다.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디고 싸움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며 만약 놈들이 이번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우리의 존엄을 계속 위협하고 우리의 신성한 렬토, 명봉, 명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즉시적인 천백배의 보복성전으로 원수의 무리를 썩자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겠습니다.

하여 보복마저 모자랐던 간고한 속에서도 미래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잠수함수중탄도탄과 함께 수소탄까지도 마음먹은대로 팽방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놓고 세계각국에서 터져나오는 부러움과 놀라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대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세계를 위력적타격하는 현대정치적 거장, 최세의 명장을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무상의 행운으로 가슴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조석으로 변이 나는 격동적인 시대에 또 하나의 민족적대경사인 수소탄시험성공이라는 역사적사건에 접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는 오늘의 수소탄시험성공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특대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날것이라는 막판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하루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수소탄 시험성공을 깎아내리고 《도전》이요, 《위반》이요 하고 떠벌일수록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더욱 역세게 지켜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끊없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펼쳐주시고 핵무기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결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잃지않고 싸우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제일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한 국방부문의 영웅들처럼 당중앙과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함께 하며 수행의 유희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 나가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대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사상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핵무기의 혁명정신, 핵무기의 칼바람정신과 자강적제일주의를 베풀어 새긴 사상과 신념의 장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나가 하였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을 배아프게 여기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벌써부터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 전략핵폭격비행대를 끌어들이나 하며 나라의 정세를 전정정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며 존엄높은 주체의 품은 당기를 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전진을 멈추세울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오늘의 승리를 더욱 위대한 승리로 끝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핵무기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갑니다.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디고 싸움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며 만약 놈들이 이번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우리의 존엄을 계속 위협하고 우리의 신성한 렬토, 명봉, 명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즉시적인 천백배의 보복성전으로 원수의 무리를 썩자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겠습니다.

하여 보복마저 모자랐던 간고한 속에서도 미래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잠수함수중탄도탄과 함께 수소탄까지도 마음먹은대로 팽방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놓고 세계각국에서 터져나오는 부러움과 놀라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대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세계를 위력적타격하는 현대정치적 거장, 최세의 명장을 최고명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무상의 행운으로 가슴들먹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조석으로 변이 나는 격동적인 시대에 또 하나의 민족적대경사인 수소탄시험성공이라는 역사적사건에 접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는 오늘의 수소탄시험성공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특대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날것이라는 막판과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하루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수소탄 시험성공을 깎아내리고 《도전》이요, 《위반》이요 하고 떠벌일수록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더욱 역세게 지켜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끊없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펼쳐주시고 핵무기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결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래를 잃지않고 싸우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하제일위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엄을 만방에 떨치며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을 빛나게 실현한 국방부문의 영웅들처럼 당중앙과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함께 하며 수행의 유희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 나가기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대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사상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핵무기의 혁명정신, 핵무기의 칼바람정신과 자강적제일주의를 베풀어 새긴 사상과 신념의 장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정성기를 열어나가 하였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성공을 배아프게 여기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벌써부터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다, 전략핵폭격비행대를 끌어들이나 하며 나라의 정세를 전정정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며 존엄높은 주체의 품은 당기를 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의 전진을 멈추세울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오늘의 승리를 더욱 위대한 승리로 끝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핵무기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나갑니다.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 만세!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디고 싸움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며 만약 놈들이 이번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우리의 존엄을 계속 위협하고 우리의 신성한 렬토, 명봉, 명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즉시적인 천백배의 보복성전으로 원수의 무리를 썩자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 말겠습니다.

하여 보복마저 모자랐던 간고한 속에서도 미래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최강의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상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총대로 사회주의 수호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위대한 김일성시대 인민군정사들처럼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축하연설

동지들!

나는 피끓는 가슴마다 핵무기산대국을 역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수호의 최정방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전체 장병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단행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개발된 수소탄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가진 최강의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긍지높은 선언이며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역사적인 대장거, 민족사적인 특대사건입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적대정책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엄혹한 시기에 그 무엇에도 구애없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용단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수소탄시험의 눈부신 대성공은 천하를 끌어보시며 력사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 드림같은 선군 의지가 안아온 장쾌한 승리입니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땅위에 인류가 일찌기 알지 못했던 경이적인 전변의 서사시를 수놓으며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을 안아오시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병진조선의 제시하시였으며 지난해에 진행된 당창건 일흔둘째주년 기념식과 전략적합동 탄도탄수중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가 갖춘 핵은반수단들의 위용을 세계앞에 보여주도록 하신데 이어 오늘은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까지 이룩해주시는 만고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위적인 핵무기산대국을 세기신 거룩한 명도의 자욱이 있어 우리 혁명무력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는 그 누구이든, 그가 지시상 그 어디에 있든 입의 지점에서 입의 시각에 최후성명의 불멸력을 들뜨게할수 있는 위력한 핵보유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특대사건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어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천백배로 가다듬고있는 우리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강국건설의 역사적인 위업,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핵강국건설업적을 핵무기산대국에 결사보위해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습니다.

지금 선군총대의 조준경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천재적인 지략이 돌아나해들 넘기며 안철부절 못하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들, 제국주의잡것들이 지구를 통째로 뒤흔든 주체조선의 수소탄의 진동에서 전멸하는 가련한 물고기들처럼 보이겠습니다.

미제가 선군조선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미 거덜이 난 대조선침략과 적대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던 찌레질것은 무지비한 핵불바라와 최후명일의 무덤뿐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가장 극악한 교살자이며 핵전쟁위험의 최대근원인 아메리카제국을 지구상에서 총무리째 들어내자, 이것이 천

리방선초소마당에서 울리고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함성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탄도로켓장착형 수소탄까지 완전무결하게 완성되어 준비되었으며 다종의 핵탄들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제헌없이 운반할수 있는 최첨단탄도수단들이 그분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의 핵위력이 강화될수록 자만대취하지 말고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평가사상적으로 그날이 오면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시고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위력에 최강의 핵억제력까지 갖춘 핵무기산대국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천만산악이 가로놓이고 지구가 열백번 깨어진대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운명의 기둥, 승리의 기치로 굳게 믿고 따르며 전군이 천정단결의 성세, 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대양군들을 결사보위하겠습니다.

나라의 정세는 우리의 이번 수소탄시험성공을 계기로 더욱 악랄한 제재소동을 꾸러려고 발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대대적행동으로 더욱더 긴장해지고있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 특대사건에 접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새차게 끓어오르고있습니다.

저는 온 나라 지식인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한평생 류애없이 험난한 생노고를 헤치시면서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시며 주체조선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전진시켜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핵무기의 선군정상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천지를 진감하며 터져오른 우리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은 선군의 보검을 역세게 추켜드리고 최후승리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림같은 자주적신념과 배양, 당대한 기상의 파시이며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높이 떨친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입니다.

지난날 힘이 약하여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아왔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자위의 힘을 키우고 백승의 전열을 빛내가는 영웅조선으로, 세계적 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우뚝 솟아올랐고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명도밑에 세계가 부러움에 수소탄까지 가진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은 이 땅에 핵화학을 들뜨우려고 미처달라지는 로아무도한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후려잡기는 존엄한 철위이며 침략의 아성을 밀부리려 뒤흔든 역사적패승입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민족번영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우리의 주체적혁명을 핵무기산대국의 무지지침, 제일성이며 그 위력은 수소탄의 보유로 세계의 정세에서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주체조선의 수소탄은 미제와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에워보려던 시에는 완전히 끝장났으며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선군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수소탄을 보유함으로써 우리는 최강의 핵무기의 담보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더 세차게 울려부수고 있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적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서막을 장쾌하게 열 어제긴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핵무기의 병기창에서 창조된 자력자강의 정신을 베풀어 세차게 울려부수고 있게 되었으며 과학자들의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애국적신심, 높은 창조력의 결정체입니다.

수천만°C의 고온과 엄청난 고압기술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현한 핵융합반응은 수소탄을 비롯한 열핵무기가 결코 큰 나라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주체조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독점물이 되었다는것을 긍지높이 세상에 선포할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리적조건에 제한이 없고 명도만 넓다면 미국방위체제를 일시에 없애버릴 핵탄도, M급수소탄까지 편지퍼 리트릴 기세에 총민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으로 새해의 첫문을 열어주시고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인 수소탄의 우월한 폭음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승리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따라 당의 강성국가건설대업도 빛나는 과학기술 성과로 총직하게 발돋어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이 깊이 자각하고 김정은애국주의를 깊이 발휘하여 과학연구성공으로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최세의 정치거장이시며 백전백승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주체강국의 창랑한 미래가 있다는 억척불멸의 신념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일심단결 총진군에 받드는 찬란한 혁명사, 당의 파란전초병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기반자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려는 우리 당의 승고한 의도와 크나큰 믿음은 한시도 잊지 않고 핵무기의 혁명정신, 핵무기의 칼바람정신으로 국방공업발전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최강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총돌격, 총매진해나갈것입니다.

특히 원수들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달상한 신포에 휴집을 낼수록 또다른 형태의 수소탄폭음으로 놈들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리게 될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강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선진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배로 강화하고 자주, 자립, 자위로 승리하여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갈것입니다.

존엄높은 핵강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인 우리들은 최첨단물과전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선군조선의 수소탄과 같이 세계를 놀래우며 과학기술성파들을 끌어안고 창조함으로써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정성기로 빛내이고 위대한 김정은조선은 늘 수리높이 떨치는데서 조선식인민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 주체의 핵강국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

## 수도의 곳곳에서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축포 발사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하여 온 나라 강산에 사상으로 역척불변하고 총대로 굳건하며 과학기술로 비약하는 위대한 태양민족의 크나큰 환희와 감격이 차넘치고 로동당민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역사의 대장거,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이온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무도회와 축포발사가 8일에 있었다.

김일성평장과 당상건기념탑, 평양체육관, 4.25문화회관, 개신문화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우주정복의 속모성, 자주의 핵퇴성으로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온 백두산민족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로 흥성이었다.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축무도회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서 떨쳐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시는 김정은원수님께 온 나라 청년전위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또 환분의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음을 가슴벅차게 절감하는 청년전위들과 근로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가 춤물결되어 끝없이 끊이졌다.

《봄빛입니다 해빛입니다》,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뿔소》, 《변이 나는 내 나라》 등의 경쾌한 노래선율에 맞추어 춤물동을 이어나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됨에 지위적핵강국의 기상,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더 높이 떨쳐지리라는 확신이 어려웠었다.

전세대 영웅들처럼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과 병진로선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쳐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무도회장에 차넘쳐있었다.

피끓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으로 승리의 5월을 향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열혈청춘들의 기상과 광만을 반영한 《조국에 청춘을 바쳐가리》, 《정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돌파하라 최철단을》 등의 노래들은 무도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승리는 대를 이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의 노래

선율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도 자주의 핵퇴성으로 강대한 핵보유국,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와 감사의 정이 어려웠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진군마다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해갈 맹세하고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사에 특기할 주체의 핵강국의 위대한 승리를 경축하는 장대한 축도가 무도회의 마음을 장식하며 수도의 하늘가에 터져올랐다.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어

주체의 핵강국으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라선 백두산대국의 무한한 영광과 천만군민의 환희의 분출인양 경축의 축도가 끝없이 터져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백두의 넓과 기상안고 세기를 추렴잡으며 노도쳐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이런듯 불꽃들이 기백있고 담차게 하늘을 채지리며 솟구쳐올랐다.

신군으로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와 열화같은 흥모의 정을 담아 축도가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위대한 백두명장들께서 마련

해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며 《나가자 조선아 명진앞으로》 등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황홀한 불의 세계를 바라보며 군중들은 또 환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최대의 애국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하는 조국의 기상을 안고 천색만색으로 하늘높이 터져오르는 황홀한 불보라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대한 폭음으로 열어젖힌 그 기세,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혁명적의지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무도회와 축포발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들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절리를 천민의 심장마다에 굳게 새겨주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으로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있고 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쳐준 우리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뜨거운 감사의 정이 끝없이 불결치는 속에 공훈국가합창단

# 공 훈 국 가 합 창 단 경 축 공 연

## 성 황 리 에 진 행

경축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

공연장소인 인민극장은 백두의 핵강국으로 존엄높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백두의 기상과

대국적자존심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열의로 끓어넘치고있었다.

무력기관 일군들, 군대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예술인, 교원, 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기념비적승가인 《김정은장군간가》의 우범한 함양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발걸음》, 《우리의 행진곡》, 《항상 앞으로》, 《우리의 김정은동지》, 남성독창 《그이 뜻 따르는 길에》, 혼성5중창과 남성합창 《인수님결에는 인민이 있습니다》, 관현악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민족사에 길이 빛날 세기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수놓으시며 세계가 경탄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눈부신



세기의 태양, 불세의 대강국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남들같으면 얼얼해도 주저 않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탁월으로 빛내여가시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심을 안고 부르는 출연자들의 노래는 장대를 진감시켰다.

위대한 선군애양을 높이 모시고 로동당시대의 변명과 문명의 개화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환희를 구가한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떨쳐가자 천하제일강국》,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바다 만풍가》, 《월명야래 사파바다》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뜻으로

참고 자주, 신군, 사회주의의 불변개도를 따라 반제반미대결전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가는 강대국의 기상, 백두산혁명군인의 위용을 파시한 정음악과 남성중창 《군위부대자랑가》,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를 필로 새겨주었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서지자 장내는 자주로 존엄높고 신군으로 위력떨치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그 어떤 원수도 범접 못하는 주체의 핵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천출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흥모심으로 새차게 설매되었다.

공연은 신군조선의 백두산행군가로 하늘따를 진감하며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남성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기념 버찌 말자》로 절정을 이루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명도가 있고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총성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진군가로 높이 울린 공연은 김정은상제관작품인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마감을 의의있게 장식하였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멸의 침로따라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 당의 두리에 천견단결으로 굳게 뭉친 불세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훌륭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 훈 국 가 합 창 단 공 연 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백두산대국,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며 떨치며 주체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오늘날의 총진군에서 승리의 포성을 더 높이 울려갈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